

“전북경제 버팀목으로서 소임 다할 것”

전주상의 제25대 김정태 회장 취임... 소통 통한 화합·회원 지원 서비스 제공 강조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임·위원단이 14일 호텔라한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정태 신임 회장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상공인들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전북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김정태 회장을 비롯한 임·위원단이 14일 호텔라한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이임하는 윤방섭 회장에게는 재임기간 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공으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취임식은 김관영 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정운천, 안호영, 강성희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상공인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주상공회의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제시한 6대 비전을 꼭 실천해 나가겠다”며 “소통을 통한 화합과 결집으로 창조적

인 명품 상공회의소를 만들고 정체성 확보를 최우선 전략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 경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회원업체 편익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경영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도록 회원 지원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공인들과 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팔팔 뭉쳐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상공인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출범한 전주상공회의소 제25대 임·위원단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강한 기업 육성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역상품 애용 △탄소, 자동차, 문화관광, 식품산업 등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적극지원 등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욱기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13일 청사내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전북농협 채권관리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전북농협 채권관리 전략회의’

건전한 여신관리로 튼튼하고 건강한 농협 구현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13일 청사내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농·축협 여신 및 채권관리 책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전북농협 채권관리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채권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축협 여신 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채권관리 법률사례, 담보 채권관리, 무담보 채권 관리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 됐다.

특히, 이두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다양한 법률 사례를 통한 업무 노하우를 전수 받기도 했는데, 교육에 참여한 농축협 직원들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사례를 통해 알게 되어,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표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실무능력이 향상되고 체계적 채권관리로 건전성이 강화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농진청, ‘10년 넘게 축적된 농식품 소비 정보 한눈에 파악’

2010~2022년 수도권 구매자 소비 정보 1100만여건 공개... 15일부터 ‘농사로’ 서 내려받아 누구나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축적된 수도권 거주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 정보 약 1,100만 건을 3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수도권 소비자 패널 가구가 매달 작성한 가계부를 기반으로 농식품 품목별 구매 금액, 횟수 등 농식품 소비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소비자 패널이 가계부에 부착한 영수증 목록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품목을 세분화해 연도나 시기, 계절에 따른 농식품 구매 성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쌀의 경우 백미, 찰쌀, 현미, 흑미 등 13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전체 구매량과 상하면기, 월간 구매량 등을 종합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따른 소비 동향을 알 수 있게 했다.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정보 포털사이트 ‘농사로(www.nongso.kr)’에서 3월 15일부터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학계, 산업계 등을 주축으로 ‘농식품소비연구포럼’을 3월 15일 발족하고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상품개발 및 현안 분석 등 다양한 연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울러 산림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공사(KaT)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산업경영과 허두중 과장은 “농식품 소비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개로 새로운 연구 개발(R&D) 방향성을 제시하며 창업 발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농어촌공 전북본부, ‘농지연금사업’ 적극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지연금사업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농어촌공사 전경.

수는 총 3,073건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 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t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김욱기 기자

전협 전북자치도회, ‘건설산업 근로기준법·노무관리 실무 강습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 건설산업 근로기준법 및 노무관리 실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도내 전문건설업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습회는 국제윤리노무법인의 최민규 대표노무사와 이무영 총괄팀장이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산재처리 및 대응, 외국인근로자관리,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박상열 과장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관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도내 3,200여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 및 보호육성에 힘쓰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회원사의 직무능력 향상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입찰 기초교육, 노무관리, 노동관련 교육과 실적신고 강습회를 실시하는 등 회원봉사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건설산업 근로기준법 및 노무관리 실무 강습회를 개최했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